

특별기고 **한국인의 멋 ①**

“외형미는 선과 색, 정신미는 가락과 춤, 문학 및 언어의 특질로 압축”

요즘 우리사회에 한국적인 것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전통도 역사의 뒤안길에 버려진 돌방이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다. 빠른 인터넷 안에 속수무책이 된 한국인의 멋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다. 이 글은 전 재경포천시민회장으로 활동한 정동화 박사의 특별 기고문이다. (편집자주)

1. 멋이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한국 여인의 짧은 저고리와 긴치마, 거기에 드리워져 바람에 나부끼는 옷고름이나 뾰족하게 솟아오른 외세버선의 컷등,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을 향한 기와집 처마 등의 곡선에서 한국의 ‘멋’을 예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달라 풍류, 미의식(美意識), 운치, 여운, 파격 등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멋’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조운제, 이희승, 조지훈 씨 등의 주장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멋’이 ‘멋’에서 연유됐다고 하는 점에서 일치하는 주장과 하고 있다. 그러나 멋이라는 협의의 미학 개념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광의의 감각 개념으로 의미 영역의 확대에 의해 파생된 용어이다.
이에 대해 최하림 씨는 조지훈 씨의 주장에 결부하여 “멋이란 미(美)와 비슷한 내용인면서 이미 미적 가치 판단이 내려진 뒤에 사용되는 개념이며, 하나 이상의 자연물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거나 인간의 창조물 또는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정신미의 성격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고 하여, 미적 개념임을 전제할 후 그 미(美)의 복합적인 조화미를 강조했을 뿐 역시 미의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인 리처드 러트 주교는 ‘멋’이라는 용어가 영어에는 없는 한국어에만 있는 것으로 전제할 후 “멋은 아름다움도 아니고 신뜻한 것도 아니고 풍치스러운 것만도 아니지만 이 여러 가지 개념과 관련해서 무슨 매력을 풍기는 것”이라고 규정 짓고 있다. 확실히 리처드 러트 씨의 말과 같이 ‘멋’은 미(美)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보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광의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그 할 때 멋있다”거나 “그 집 멋있다”고 할 때 아름답다는 의미 이상의 어떤 매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멋’에 대해 일찍이 조지훈 씨는

다음의 의미, 즉 첫째 재미 또는 흥취, 둘째 조화, 셋째 분별(규격과 사리에 통해야 한다), 넷째 세련, 다섯째 자유 방종이 격에 맞는 열락(悅樂).....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고, 이 밖의 ‘멋’의 내용으로서 비정제성, 다양성, 율동성, 곡선성 등을 들고 다시 표현미로서 원숙미, 왜곡성, 완형성(玩弄性), 무실용성 등을 들은 바 있다. 확실히 조지훈 씨는 ‘멋’의 복합적이고 추상적이며 광의의 개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멋’이 미의 가치 판단을 전제한 개념이므로 미가 중추적 개념이기는 하나 거기에 흥취나 해학, 여유나 운치, 장난, 여운 등이 첨가되어 생기는 변화나 파격 등에 의한 ‘개성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미’가 조화를 전제로 하고 ‘멋’도 미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화미가 다 같이 필수 조건인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이 공통점 때문에 미와 멋이 혼동된다고 본다. 그러나 ‘멋’이 미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중용적 조화가 더욱 강조되고 그 할 때 아름답다는 의미 이상의 어떤 매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멋’에 대해 일찍이 조지훈 씨는

미의 단순한 조화미보다 비정제, 다양, 왜곡, 파격, 변화, 운치, 여백, 여운 등이 첨가된 한층 높은 차원의 원숙미로 세련미다. 그리고 미를 전제로 한 ‘멋’도 미와 같이 무실용성적 의미를 띤다. 나는 이러한 뜻을 한마디로 ‘원숙한 개성미’로 규정하고 싶다. 그러나 ‘멋’이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용적인 조화를 초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특질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의 멋’은 어떤 것인가? 나는 한국인이 창조한 조형 예술품인 옷, 건축, 청자, 그림 등의 외형미와 음악, 무용, 문학, 언어 등의 내재적인 정신미(심성미)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의 결과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표리적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외형미까지도 한국인의 깊은 내면에 깔려 있는 정신미의 발현이며 그러나 개념에 이 둘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외형미는 선과 색, 내재적인 정신미는 가락과 춤, 문학 및 언어의 특질로 압축된다. 이러한 선과 색, 가락과 문학 및 언어의 특질에서 추출되는 공통본모적인 특질을 바로 우리 민족의 ‘멋’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정동화 박사
前 재경포천시민회장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⑨**

물의 생태학에 담긴 풍요와 충족의 의미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인류의 역사는 물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물을 찾아 여정을 떠나는 유랑과 정착의 과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강은 어느 국가에서나 지역에서는 저마다 풍요와 융성의 기세를 안고 있다. 씨족이 물과 함께 형성되고, 그 씨족이 성장하여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더 발전하여 마을과 도시가 되었고, 마침내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 강은 제각기 굽이굽이 흐르는 궤적 속에 인공의 역사적 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은 여러 제식(祭式)을 통해, 혹은 정식적인 교감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강은 문명의 부침(浮沈)을 지켜 본 목격자이자 태고의 비전(秘傳)을 보 호하고 있는 옛 이야기를 전해 주는 기억의 저장고인 셈이다.
고대인들은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따뜻한 지역보다 물이 풍부한 곳을 더 선호했다. 이들은 땅이 척박하면 열심히 땅을 흘려 그것을 일구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기후 조건이 열악하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물만큼은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될 절대적 조건 그 이상으로 상상하였다. 언제나 이들은 자신들의 자신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터전인 논밭에 물을 대고, 수로를 건설하고, 강줄기를 윈하는 곳으로 바꾸는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관개시설을 통해 자신들의 척박한 정착지를 비옥한 농경지로 바꾸어 풍요로운 수확물을 거두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미, 4천 년 전에 아시리아 유목민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척박한 지역을 서

구문명의 요람이 된 비옥한 삼각지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다음에 홍수로 넘쳐흐르는 물을 보존하기 위해 거대한 인공호수를 만들기도 하였다.
사실, 나일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인들의 사교의 자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는 현실적인 보고이자 정신적 실존의 근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나일강은 그 인근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2천만 이집트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일지, 특히 헬레니즘 문명의 기원지인 그리스, 그리고 로마인들이 매우 신성시하던 역사적 흔적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이집트들은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면 그것이 강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더욱 성스럽게 생각했다. 나일강의 범람은 강물이 범람에 주된 땅으로 흘러들어 땅을 다시 살아가게 하고 비옥하게 해주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신이 주는 선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강의 범람을 ‘영혼의 정화’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진상물은 강물에 빠진 자신의 몸이라고 여겼다. 이집트인들에게 ‘물에 빠진다’는 뜻의 말은 ‘찬미한다’라는 뜻으로 통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강물 속에서 신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이런 노래를 바치기도 했다: “그대는 태양신인 ‘하’가 창조한 들녘에 물을 흐르게 하는 풍요로운 존재,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대지에 계속 마실 생수를 주는구나.” 이집트인들에게는 나일강은 대단한 경외와 존엄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강을 깨끗이 보존했으며, 감사의 뜻으로 제물까지 갖다 바치기도 했다. 이집트인들은 경외를 표하기 위해 강가에 성소(聖所)를 세우기도 하였으며, 또한 곳곳에 신전과 사원들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에는 그곳을 따라 여행하는 여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신화가 숨겨져 있다. 대개 여신들은 어떤 연유

로 상상했던 누군가를 찾아,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강의 흐름 속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강의 여정은 여신들에게는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탐색의 노정인 셈이었다.
가령, 에로스를 찾아 떠나는 여신인 프시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불복종에 대한 벌로 프시케는 자신의 애인인 에로스를 잃는다. 그녀가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서는 에로스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가 부과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다. 프시케는 제우스 소유의 독수리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명을 수를 아프로디테에게 바친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프시케에게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느 강가에 풀을 뜯고 있는 황금털의 양떼를 찾아 그 털을 뽑아 오라는 과제를 또 다시 부여한다. 결국 프시케는 절망에 빠진 나일강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데, 그 때 그녀를 가엾게 여긴 어느 노래하는 갈매기 프시케에게 황금털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준다. 갈매기의 도움으로 프시케는 그 임무를 무사히 완수한다. 프시케에게 그 갈매기는 절대적 절망의 운명의 존재인 셈이다. 강에서의 프시케의 외로운 탐색은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에 비추어 보면 바로 잃어버린 자신을 또 다른 분신을 찾아 떠나는 험난한 여정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프시케의 여정에는 완벽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개개인의 탐색 여행의 우화가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강이 주는 풍요와 충족의 의미를 우리의 소중한 삶이 묻어 있는 냇강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을의 앞뒤로 흐르는 작은 냇강의 자취와, 그것의 복원에 관심을 두면서 큰 강에 제각기 숨겨져 보이지 않는 작은 지류 속에 흐르는 냇강의 흔적과 가치를 사유해야 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물은 이 세상의 빈 공간을 채워주며, 늘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머문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끝내려 해도 끝낼 수 없고, 채우려 해도 언제나 비워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마을의 냇강에서 노래해야 한다.

교육에세이 78



이호연
영평초등학교 교장

“형님! 방금 교원 문예지에 실린 시 ‘망망대해’를 읽고 전화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시어들은 현재 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시어입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어안이 병병했다. 비록 후배지만 현대시로 문단에 등단한 실력 있는 시인인 후배에게 뜻밖의 큰 칭찬을 받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시 ‘망망대해’는 피사자 부산 선유도를 가족과 함께 다녀오면서 배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떠 오던 시상을 읊었던 것이다.
망망대해
망망대해 / 소나비는 / 검푸른 대대로 / 침착해 꽃했다. / 두렵이 없었다. / 꽃하는 즐거움으로 /
소나비는 잔잔히 동자였다.
망망대해 / 눈은 / 부들부들 떨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 망설이는 눈은 제 집에서 / 잊고 온 게 있다. / 시간.

물거품에 물린 슬픈 어부들의 아우성 / 스크루의 회전에 밀려 공기 중으로 분해되는 / 이우성은 / 눈으로 / 비로 / 다시 물거품 되는 / 망망대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설교했는 내 자신의 수준을 모르고 시를 쓴다는 것이 한편으로 결연적임을 느꼈다.
방학을 즈음하여 같은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교감까지 단체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도중에 부안에 있는 ‘채석강’을 견학하게 되었다. ‘채석강’ 인근에 있는 부안해수욕장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동기 2명이 해수욕 왔다가 유명을 달리한 애석한 곳이기도 하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검푸른 파도의 위용은 산을 삼킬듯하다. 유명을 달리한 옛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바다의 형상을 그려보았다. 근무지까지 돌아오는데 4시간 정도 걸렸다.
관광버스 안에서 ‘채석강’의 분위기와 나의 ‘채석강’에 대한 시상을 버무리면서 말 꼬투머리를 뽑아내려 애썼다. 몇 시간의 시상과 씨름하면서 드디어 말꼬투리를 뽑아냈다.
채석강
곰소만 갈매아 / 채석강에 이르니 / 자식 잃은 / 엄마의 뒀 / 절망되어 버림 되었다.

출판 기념회

눈에 얼어맞아 / 푸르당당한 / 겨울바다 /
엄마의 뒀 / 달래려고 / 혀를 날름거리며 욕지로 / 기어 오르려하고 / 물거품 되어 날라보나 /
눈 미친 / 겨울바다 / 하늘로 올라 / 눈과 고드를 되어 / 엄마의 뒀을 위로하는 / 채석강.
이어서 시를 계속 읽으면서 짝 맞추기 불이하듯 가락을 이어 맞추기를 했다. 몇 시간을 두고 계속 시를 읽으면서 아름다운 가락으로 이어지도록 흥얼거렸다. 피곤한데도 졸리지도 않았다. 드디어 가락이 완성되었다. 기보력(記譜力)이 없으므로 가락을 외워야 한다. 외우지 않으면 정리된 가락이 모두 흐트러진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웠다. 그런 후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음악담당 강사에게 전화하여 가락을 불러 주어 받아 적게 했다. 어떻게 노래가 한국 작곡되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필자의 시작의 과정을 공개한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과 놀이처럼 시도해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안내한 것이다. 얼마동안 연습시키면 반기(班歌)도 작곡하는 학생이 나올 것이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원가도 작곡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교사 마지막 시절에 주로 저학년용 답답했다. 저학년의 경우 놀이나 노래를 매우 좋아한다. 부담이 없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 때 어떻게든 재미있는 것인데 저학년에게는 교육과정용 놀이 중심과 학습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여 가사를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 가르쳐 주면 배운 내용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학습한 내용의 핵심으로 가사를 만들어 간단한 가락을 붙여 노래를 작곡하여 부르게 한 경험이 있다. 이런 과정도 교사가 반복적으로 시도한다면 교사 자신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다.
필자 나름대로 이러한 시도를 했기 때문일까? 가끔 떠오른 시상으로 시를 쓰고 그 시를 가지고 가락을 붙여 작곡도 하고 있다. 아직 몇 곡 안 되지만 광주시 모 초등학교의 교가도 작곡하였다.
이런 나름대로의 필자 개인적인 노력의 결실과 주위의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시집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출판기념회를 갖게 되었다. 이순(耳順)이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는데 출판기념회 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동심이 남아 있다는 것일까?

참가가능기간 : 7월 18일(금) ~ 7월 24일(목)까지
031)542-9779
전자랜드 포천점으로
축하문자를 보내주세요!
1 축하문자 보내기 2 당첨결과확인 3 21만 고급 자전거 또는 고급 머그컵 2P 증정
오른초특가 파격세일 포천점 오른쪽
Ever Happy 전자랜드
위치: 통일대입구 삼거리